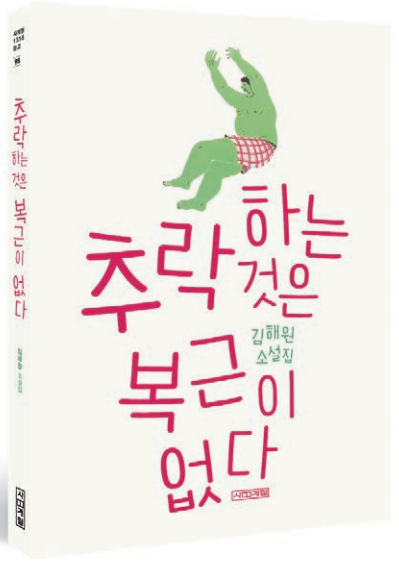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작성 이성균(시흥 함현고등학교 교사)
오세호(안산강서고등학교 교사)
성지현(시흥 군서고등학교 교사)
윤이정(안양예술고등학교 교사)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1318문고 98
김해원 장편소설

■**주 제 어** #삼성반도체_노동자 #왕따 #인권 #자존감 #버마_민주화_항쟁

■**분　　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선정 내역**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권장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열린어린이 권장도서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도서 소개

'인생(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詩)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의 시 「쉽게 쓰여진 시」의 구절이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면서 사회 구성원인 작가의 고뇌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 김해원도 고백한다. 소설가가 세상의 구경꾼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이 세상 어느 골목길에 깊숙이 발을 딛고 서 있었다. 나는 이 세상의 일부였다.'라고. 청소년들도 독서나 토론을 통해 수많은 삶의 고민과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가 삶의 문제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그 첫걸음으로 읽어 볼 만한 책으로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를 추천하고 싶다. 7편의 단편 소설로 구성된 이 책은 청소년들이 삶의 여정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소외, 폭력, 재해, 입시 스트레스, 자살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방에」는 일탈을 즐기는 친구들의 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소년이, 띄어쓰기의 상투적인 예시인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상황을 직접 겪는 이야기다. 소년이 드넓은 세상에서 답답함과 불안을 느끼고 오히려 비좁은 가방 속에서는 아늑함과 평화로움을 느낀다는 역설적 깨달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 준다.

「최후 진술」은 백혈병에 걸린 반도체 노동자가 자신의 죽음을 증명하는 전반부와 그녀의 여동생이 언니의 죽음 이후 남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스물두 살, 하고 싶은 것이 매우 많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여자와 가족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구토」는 수학여행 중 숙소에서 추락사한 학생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소녀가 학교의 침묵 강요와 자신의 과거 경험의 충격으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고뇌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추락사한 아이가 반 아이들의 따돌림으로 자살한 사실을 끝내 밝히지 못하고 모른 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려 내고 있다.

「표류」는 소풍날 한강에서 오리배를 타다 표류하게 된 소녀의 이야기이다. 소녀는 혼자만 소외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태평양을 횡단하겠다는 남자와 철인 5종 경기에 참가한 여자를 만나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한다. 정해진 대로 사는 삶, 규격화된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표류하다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는 것이 삶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는 욕으로 학교를 장악한 '껌딱지'의 비참한 몰락을 재미있고 인간미 넘치게 묘사한 작품이다. 서열 1위에서 밀린 '껌딱지'는 자신의 위상을 만회하려고 분투한다. 선배의 코뼈를 부러뜨린 일로 허세를 부렸으나 어마어마한 합의금과 부모님을 학교에 모셔 와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며 체면을 구긴다. 결국 사건의 전말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이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을지로 순환선을 타고」는 을지로 순환선 막차를 타는 것이 취미인 버마 소년 '뚜라'가 열차에 몸을 던진 여학생을 목격하고 버마 민주화 항쟁 현장에서 희생된 친구 '써베'를 추억하는 소설이다. 고통스러운 삶이 열차처럼 계속 돌고 돌아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어려움을 이겨 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소설들을 읽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린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 세상에 발을 들인 '사람'이 맞다.

학습 목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공감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역량을 기를 필요도 있습니다. 다양한 독서 활동과 토론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생각 열기〉 행복한 시시포스는 가능할까?	1차시
독서	- 「최후 진술」 읽고 활동하기	2차시
	- 「구토」 읽고 활동하기	3, 4차시
	- 「표류」 읽고 활동하기	5차시
	- 「붉은 브래지어」 읽고 등장인물의 관점에 대한 반론 자료 만들기	6차시
	- 「가방에」,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읽고 소크라틱 세미나로 작품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7, 8차시
독서 후	〈깊이 생각하기〉 개인의 삶과 사회적 안전망의 관계 이해하기	9차시
	〈깊이 생각하기〉 제안하는 글 쓰기	10차시

1차시 독서 전 - 생각 열기: 행복한 시시포스는 가능할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인 시시포스는 교활하고 못된 꾀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제우스의 분노를 사 저승에 가게 되자 저승의 신 하데스를 속이고 장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벌로 저승에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올린 그 바위가 산 정상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굴러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시포스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시시포스가 비록 형벌을 받았으나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수행해 내는 과정에서 삶을 완성시킨다며, 이를 '행복한 시시포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시포스 신화에 대한 알베르 카뮈의 수필입니다. 읽고 이어지는 활동을 해 봅시다.

> 이 신화가 비극적인 것은 주인공이 의식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리라. 만일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성공하리라는 희망이 그를 떠받치고 있다면, 실상 그에게 고통이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날의 노동자도 하루하루의 삶에서 똑같은 고역을 실천하며 살고 있기에, 이 운명도 부조리하기는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운명이란 오직 의식하게 되는 그 흔치 않은 순간들에 있어서만 비극적이다. 신들 중에서도 한낱 프롤레타리아에 불과

한, 무력하면서도 반항적인 시시포스는 자신의 비참한 조건의 전모를 알고 있다. 그가 산을 내려오며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이다. 그에게 고뇌를 가져다주었을 통찰이, 같은 순간, 그의 승리를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멸시를 통해 극복되지 않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행복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해 보고 싶은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부조리를 발견해 낼 수 없다. "어!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좁은 길들을 거쳐 가야 한다고……?" 다만 존재하는 세계는 단 하나뿐. 행복과 부조리는 같은 땅이 낳은 두 아들이다. 이들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오류는 행복이 반드시 부조리의 발견에서 탄생한다고 단언하는 데 있으리라. 부조리의 감정은 행복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판단컨대, 모든 것이 잘 되었도다."라는 오이디푸스의 말은 신성하다. 이 말은 인간의 저 잔혹하고 한계 지워진 세계에서 반향을 일으킨다. 이 말은 전부 다 소진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다 소진되었던 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은 불만과 무용한 고통들에 대한 악취미를 갖고 난입했던 어떤 신을 이 세계로부터 몰아내 준다. 이 말은 운명 그 자체를 인간들끼리 해결 봐야 할 인간사의 한 문제로 되돌려 놓는다.

시시포스의 저 모든 말 없는 기쁨이 여기 있다. 그의 운명은 그의 것이다. 그의 바위는 그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조리의 인간이 자신의 고통을 응시할 때, 모든 우상들은 잠잠해진다. 돌연 본연의 침묵으로 되돌아간 우주 안에서, 경의에 찬 작은 목소리들이 대지로부터 무수히 솟아오른다. 무의식적이고 비밀스러운 부름들, 온갖 얼굴들의 초대에 다름 아닌 그것들은 승리의 필연적인 이면이자, 대가(代價)다. 그림자 없는 태양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 고로 밤을 겪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부조리의 인간의 대답은 긍정이요, 그의 노력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 개인의 운명은 있어도, 그 이상의 운명이란 없으며, 혹 있다면 숙명적이기에 경멸해도 좋을, 인간에 의해 심판되고 말 단 하나의 운명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이외의 것에 관한 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나날의 주인임을 알고 있다. 인간이 제 삶을 향해 몸을 돌려세우는 그 미묘한 순간, 자신의 바위를 향해 되돌아가던 시시포스는 자신에 의해 창조되고 자신의 기억의 시선 아래서 통일되어 머지않아 죽음으로 봉인될, 그렇게 또 하나의 시시포스 운명이 되어 가고 있는, 서로 아무런 연관 없는 일련의 행위들을 가만히 응시한다. 이렇듯, 인간적인 모든 것이 온전히 인간적인 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신하는 시시포스, 보고자 갈망하되 밤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아는 눈먼 자 시시포스는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 바위는 또다시 굴러떨어진다.

(『시시포스 신화 - 부조리에 관한 시론』, 알베르 카뮈 지음, 오영민 옮김, 연암서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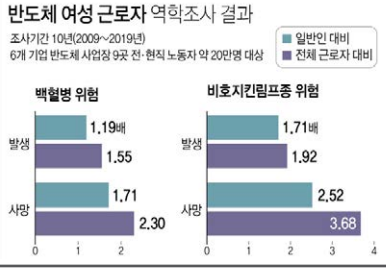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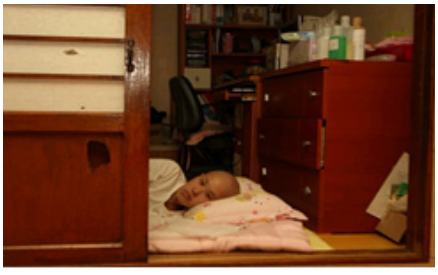
선생님께 시시포스 신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는 인터넷 동영상 자료를 보여 주셔도 좋습니다.

1. 위 수필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을 찾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2. 반복하여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밀어 올리는 시시포스의 삶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2차시 독서-「최후 진술」 읽고 활동하기

1. 다음 사진들을 소설 속에 삽화로 넣는다고 할 때, 어디에 넣을지 정하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사진	쪽	이유
사용 물질 • 불산, 과산화수소, 질산, 황산, 초산, 암모니아수, 불화암모늄 등의 산·알칼리		
		
		

2. 아래 편지를 읽고, 소설 속 '박선혜'의 동생 입장에서 세상을 떠난 언니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어릴 적 맛있는 것이 먹고 싶다던 네게
천 원짜리 한 장 쥐여 주지 못해 미안하다.
다음 세상에는 부디 부자 아빠 밑에서 태어나렴.

(＊＊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 씨의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3,4차시 독서-「구토」 읽고 활동하기

1. 다음은 '성아'가 인터넷 상담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달아 봅시다.

성* :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생활이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왕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ㄴ, 살을 빼고, 머리는 어깨까지 기르며, 앞머리는 귀여워 보이게 짧게 잘라 이마를 가리세요.

ㄴ, 옷을 빨 때 섬유 유연제를 넣어 옷에서 은은한 향이 나도록 하세요.

ㄴ, 뚱뚱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아이들의 콧대를 꺾어 줘야 해요.

ㄴ, 중학교에 가면 저절로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요!

ㄴ,

2. '성아'가 초등학교 때 당한 왕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성아가 왕따를 당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설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 빈칸을 채우고, 주장과 이유와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사진	성아는 왕따를 당하기에 충분하다.
이유	왜냐하면
관련 여부를 묻는 질문	

선생님께 학생들이 질문 만들기를 어려워한다면 다음의 예시를 토대로 안내하면 좋습니다.

예시)

주장	야구가 축구보다 좋은 스포츠다.
이유	왜냐하면 야구가 축구보다 규정이 쉽기 때문이다.
관련 여부를 묻는 질문	규정이 쉬우면 좋은 스포츠라고 말할 수 있는가?

2) 질문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3. 다음의 문장을 읽고 답해 봅시다.

> 열두 명이었던 무리는 한 명 한 명 떨쳐 내면서 결속력을 다졌다.
>
> (「구토」 85쪽)

1) 위의 문장을 읽었을 때의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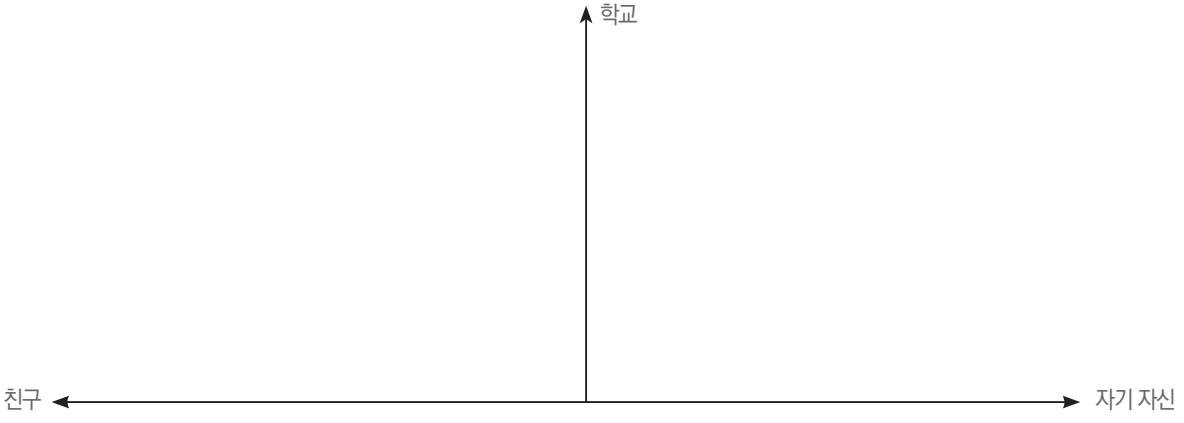
2) 왜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3) '왕따의 묵시록'의 내용을 찾아 적어 봅시다.

왕따의 묵시록
1.
2.
3.

4) '왕따의 묵시록'에 대한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4. 수학여행 중 베란다에서 자살한 여학생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책임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고, 그렇게 표시한 이유를 말해 봅시다.



5. '성아'에게 구토는 어떤 의미인지, 본문에서 찾아 적어 봅시다.

77쪽	
89쪽	
94쪽	

6. 만약 여러분 앞에 왕따를 당해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가요? 편지로 그 마음을 전해 봅시다.

5차시 독서-「표류」 읽고 활동하기

1. '표류'의 의미를 조사해 봅시다.

2. 소설의 주인공은 표류 중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3.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여 빈칸을 채워 봅시다.

'나'가 만난 사람	'나'에게 요구한 것과 그 이유	강에 떠 있는 방법	강에 온 이유	인생관	표류 여부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
새까만 선글라스를 낀 긴머리의 사내					
잠수복을 입은 여자					

4. 여러분이 소설 속 주인공을 강 위에서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 줄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주인공이 만난 사람	내가 주인공에게 요구할 것과 그 이유	내가 강에 떠 있는 방법	내가 강에 간 이유	인생관
나				

5. 다음에 이어질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인생은 '표류'이다. 왜냐하면 _____

_____

6차시 독서-「붉은 브래지어」 읽고 등장인물의 관점에 대한 반론 자료 만들기

"뭐로 맞은 거냐?"
"주판"
"주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속셈학원 애들이 들고 다니던 주판?"
"……."
"야, 너네 집에 아직도 그게 있어? 나 옛날에 안방에서 그거 타고 다니다 도자긴가 뭔가 깨서 죽도록 맞았는데……."
그래. 너는 뭐라도 깼으니까 맞지. 나는 왜 맞느냐고. 맞혀 봐. 평생 문제를 내고 맞히라고 강요하는 데 이골이 난 아버지는 질리지도 않는지 때리면서도 내내 소리쳤다. 네가 왜 맞는지 말해 봐. 정말 그저께는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 맞았다지만, 오늘은 매를 번 까닭을 몰랐다. 나는 끝내 답을 맞히지 못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 내 눈앞에 던지면서 정말로 모르겠느냐고 되물었지만, 나는 몰랐다.

(「붉은 브래지어」, 170~171쪽)

1. 「붉은 브래지어」의 '아버지' 입장을 옹호하는 측면의 논증 구조를 완성해 봅시다.

입장(주장)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은 필요하다	
이유	1. 왜냐하면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
근거		민법 915조에 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선생님께 자기의 주장으로 타인을 설득하는, 논증을 구성하는 활동입니다. 정책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판단을 담은 주장(예: 아버지 생각)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주장의 하위 주장,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신념)와, 이유와 관련이 있는 근거(사례, 객관적 데이터, 전문가 의견 등)를 구성하도록 지도합니다. 2번 이유에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방향으로 이유를 작성하며 1번의 근거는 검색을 통해 체벌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찾게 합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붉은 브래지어」의 '아버지' 입장을 반박하는 측면의 논증 구조를 완성해 봅시다.

〈보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 915조에 규정된 부모의 '체벌' 권한 삭제를 추진한다. 이 조항은 아동 복지법이나 아동 학대 특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징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고,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일본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친권자의 체벌 금지를 명기한 아동 학대 방지법과 아동 복지법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그간 우리 정부에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아동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해 왔다.

어떤 끔찍한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도 처음에는 가볍게 한 대 때리는 데서 출발하며, 작은 폭력의 사인을 무심코 넘긴 것이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숱하게 보아 왔다. 어려서 아동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장성해 부모가 되어 폭력의 가해자로 돌변하는 일도 적지 않다.

(중앙일보 사설 재정리, 2019. 5. 24.)

입장(주장)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		
이유		다른 법률의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폭력은 다시 폭력으로 악순환되기 때문이다.
근거	현재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고, 스웨덴 등 54개국은 이미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일본도 지난 3월 징계권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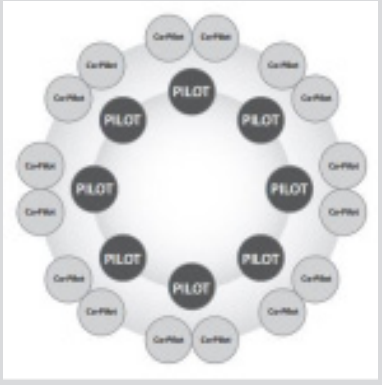
3. 1, 2번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증으로 정리하여 발표해 봅시다.

입장(주장)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은 필요하다.
이유	
근거	

7차시 **독서-소크라틱 세미나로 작품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1**

[소크라틱 세미나 활동 방법]

1) 소크라틱 세미나 배치



① 3인으로 작은 모둠을 형성함.(3인을 기본으로 하며 전체 인원에 따라 일부 모둠을 2인 또는 4인으로 편성 가능.)

② 3인을 왼쪽 그림처럼 안쪽 원과 바깥쪽 원으로 배치함.

바깥쪽 인원은 안쪽 원 인원의 2배가 됨. 안쪽 원이 발언자이긴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누구든 관계없이 그림처럼 배치하여 활동을 시작함.

2) 소크라틱 세미나 활동 순서 및 활동 내용

① 기본 전제: 학생 활동 중심 모형으로 학생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동료 학생들이 '설명'을 하며 함께 학습함.

② 활동 순서 및 내용

개인 활동	• 텍스트를 읽으며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으로 만들기. • 질문의 유형과 방향을 정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음.
모둠 활동	• 3인 모둠이 모여 각자 만든 질문을 제시하고 모둠 안의 다른 구성원이 설명함. • 각자 중점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함. • 활동 뒷부분에 해결한 질문과 해결할 질문을 정리하고 모둠 대표 질문과 안쪽 원에 먼저 들어갈 구성원을 선정함.
세미나	• 안쪽 원 학생들이 교사의 개입 없이 모둠의 질문을 제시하고 설명함. • 발언은 안쪽 원 학생들만 하며, 바깥 원 사람은 세미나 내용을 경청하고 메모하다가 질문이나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자기 모둠 구성원들과 교대하여 안쪽 원으로 들어가 활동함.

1. 며칠 뒤 엄청난 사건이 터져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 내가 두 달 가까이 의리 있게 라면을 끓여 먹여 키운 그 여섯 명이 대형 사고를 쳤다. 동네 피시방 돈 통에 손을 댄 것이다. 그것도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다. (「가방에」 19~20쪽)

2. 내가 사회 공부에 집중, 아니 집착하는 동안 학생부에 붙들려 있는 여섯 명의 허물이 낱낱이 밝혀졌다. 1, 2학년 후배들한테 일상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것과 비싼 브랜드 옷을 여러 벌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과 피시방, 노래방 요금을 대신 내도록 협박했다는 사소한 것까지 까발려졌다. (23쪽)

3. 그리고 내가 한 일도 학생부에서 다 알게 되었다는 걸, 담임이 점심시간에 학생부에 가 보라고 했을 때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박경준! 너 몇 반이라고?"

"구 반인데요."

"구 반에는 사고뭉치 여섯 중 한 명도 없잖아. 근데 게네들은 어떻게 알았어?"

"그냥……."

"늬들은 왜 그러냐? 여기 불려 온 애들은 첫마디가 다 그냥이래, 그냥 돈 줬고, 그냥 옷 벗어 줬고, 너는 그냥 뭐? 똑바로 말해 봐!" (23~24쪽)

4. "하긴 그 녀석들도 또 다른 학교 애들한테 다 뜯겼더라고. 얘들 구조도 약육강식이라서 뜯기는 놈들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당하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것들한테. 여하간 요즘 애들은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어요. 한번 상하 구조가 잡히면 그걸 못 바꾸더라고." (29쪽)

5. 학생부에 불려 갔다 온 민호는 뙤약볕 아래서 뜀박질을 한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다. 민호는 수업 시간 내내 침묵했다. 나는 묻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호도 나도 눈을 피했다. 수업이 끝나고 민호가 교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30~31쪽)

6. 민호는 가방 지퍼를 열고 번쩍 다리를 들어 가방 안에 몸을 들이밀더니 조심스럽게 쪼그리고 앉았다. 아버지보다 왜소한 민호는 가방에 쏙 들어갔다. 나는 습관처럼 달려가 능숙하게 가방 지퍼를 잠가 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여기 좋은데!"

민호는 가방에서 머리를 쏙 내밀고 실실 웃었다. 아버지도 좋았던 것일까? (33쪽)

7. "좋기도 하겠다. 라면 불어, 어서 나와."

"정말 좋다니까. 너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구나.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끄러운 세상과 단절된 나만의 세상에 있는 느낌이야. 자궁처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할까?" (34쪽)

8. 나는 안방에 들어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가방을 물끄러미 보았다. 그러다 가방으로 다가가 한쪽 다리를 넣었다. 다른 쪽 다리를 넣고,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쪼그리고 앉아 오른쪽 어깨를 무릎 사이에 깊숙이 박은 채 손을 밖으로 빼서 지퍼를 잠그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쪽에도 지퍼가 달려 있었다. 지퍼는 안에서도 쉽게 잠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민호가 혼자 지퍼를 잠갔구나. 아버지는 으레 내가 해 줘서 몰랐을까? 나는 지퍼를 올렸다. (36~37쪽)

9. 가방 안은 민호 말대로 편안했다. 마치 무엇이 나를 감싸 안고 있는 느낌이었다. 자궁 안이 이랬을까. 나도 열 달 동안 엄마의 자궁 안에서 평화롭게 있었던 것일까. 아버지도 그래서 이 가방 안에 들어간 걸까. (37쪽)
10. 나는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있었다. (37쪽)

1. [개인 활동] 위 글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해하지 못한 것	
좋거나 싫은 것,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 것과 내가 가방에 들어간 것의 의미는?

2. [모둠 활동] 개인 활동에서 만든 질문을 이용하여 모둠 활동을 해 봅시다.

질문	토의 결과

3. [세미나 활동] 모둠 활동을 토대로 세미나 활동을 해 봅시다.

질문	토의 결과

1. 며칠 뒤 '대패삼겹살 화장실 어퍼컷' 사건이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을 때, 유일한 증인으로 나선 상호는 껌딱지의 생생한 전투담을 기억해 내며 껌딱지의 과오를 증명했다. 껌딱지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사건 경위서를 들여다보는 학년 부장은 진지했다.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111쪽)

2. "너 인마, 어쩔래? 서준성이 집에서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난리를 친다. 인마 싸워도 사람을 봐 가면서 싸워야 할 거 아냐? 왜 하필 그 녀석을 건드려 가지고…….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코뼈를 부러뜨렸으니 어쩔래. 치료비 물어내는 걸로는 어림도 없게 생겼어." (112쪽)

껌딱지는 그때 막 "다시는 이런 일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에 마침표를 찍다가 치료비라는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제가 그걸 물어내요?" (112~113쪽)

3. "부모님은 언제 오시냐?"

"저기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자식 일보다 더 중한 일이 있어? 지금 전화해."

"그게 오실 수없는 상황이라서……." (120쪽)

4. "피해자 부모가 당장 경찰서로 넘기겠다는 걸 너네 학년 부장님이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하도 사정해서 내가 시간을 끌고 있는 거야. 요새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나설 필요가 없어. 가해자 피해자 합의 보고 합의금 보상하고, 안 되면 집어넣든지 어쩌든지 이게 경찰들이 할 일이지 교사가 할 일로 보여?" (120쪽)

5. "선생님 그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껌딱지는 슬쩍 주변을 둘러봤다. 선생님 대부분은 수업에 들어가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선생님은 두 명뿐이었다. 껌딱지는 마른침을 삼키고는 힘겹게 입을 뗐다.

"선생님, 그게 삼 학년 코를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너 뭐라는 거야? 네가 그런 게 아니면? 너 사건 경위서에 싸움이 나서 다섯 대나 때렸다고 안 적었어?"

"사실은 그게 제가 때리려고 했는데 그 자식이, 아니 그 선배가 피했는데 제가 넘어지면서 선배도 넘어져서……." (121쪽)

6. "최영진, 그 말을 누가 믿겠냐? 네 친구들도 다 네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하잖아. 사내 녀석이 잘못했으면 당당하게 인정해야지, 대걸레한테 미루는 건 비겁하지 않냐?"

"그건 내가, 아니 제가 친구들한테 때렸다고 뺑친 거라……. 정말 서준성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정말이에요. 저는 손도 안 댔어요."

"됐어. 네 얘기는 부모님 오시면 더 듣고, 부모님 아무나 한 분 전화번호 대." (123쪽)

7. 그는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학생부 부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였다. 저는 이미 1학기 때 짱의 권좌에서 끌어내려져 근 석 달 동안 싸움다운 싸움을 하지 못하면서 실전 감각이 극심하게 떨어져 예상하지 못한 공

격에 반격은 해 보지도 못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껌딱지는 사력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부장은 매정했다. (123~124쪽)

8. "빨리 전화 번호 대!"

"선생님, 정말 제가 증인도 데려올 수 있다니까요."

"무슨 증인?"

"그게 제가 그러니까 에이……."

껌딱지는 붙잡고 있던 전화기를 확 밀쳐 내면서 몸을 돌려 교무실을 뛰쳐나갔다. (124쪽)

9. 반 아이들은 운동장 곳곳에 흩어져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껌딱지는 셔틀콕을 주고받는 아이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소리쳤다. (124쪽)

10. "이고수 어딨어! 이고수!"

껌딱지는 이고수를 애타게 찾으면서 짧은 인생 동안 익힌 모든 욕을 내뱉었다. 반 아이들은 마치 래퍼처럼 쉴 새 없이 욕을 하며 뛰는 껌딱지를 보고는 피식피식 웃어 댔다. 한 아이는 배드민턴 채를 빙빙 돌리면서 맞은편에 서 있는 애한테 입을 버끔거렸다. 미쳤나 봐. (125쪽)

11. 껌딱지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 있었다. 반 아이들은 껌딱지가 이고수한테 달려들어 다짜고짜 손목을 잡아끌고 가는 까닭을 짐작하지 못했다. 피할 겨를도 없이 우악스러운 껌딱지 손에 잡아채여 끌려가는 이고수도 몰랐다. 껌딱지가 누구한테 욕을 퍼부어 대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지. 어디로 왜 달려가는지. (125쪽)

1. [개인 활동] 위 글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질문 종류	질문
텍스트 안 정보, 정보 간 관계 등 기억에 의한 답변 유도	
이해(해석)를 확인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질문	
텍스트를 개인 삶에 적용하거나 텍스트를 평가하는 질문	

선생님께 첫 번째 질문은 사실적 질문으로 텍스트 안에서 찾거나 기억을 되살려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해석적 질문으로 독자에 따라 다른 해석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평가적 질문으로 독자의 가치와 경험을 토대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2. [모둠 활동] 개인 활동에서 만든 질문을 이용하여 모둠 활동을 해 봅시다.

질문	토의 결과

3. [세미나 활동] 모둠 활동을 토대로 세미나 활동을 해 봅시다.

질문	토의 결과

9차시 **독서 후-〈깊이 생각하기〉 개인의 삶과 사회적 안전망의 관계 이해하기**

1.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 중에서 그들이 보장받지 못한 헌법의 조항들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단편 제목	보장받지 못한 헌법 조항	해당 조항을 선택한 이유
가방에		
최후 진술		
구토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표류		
붉은 브래지어		
을지로 순환선을 타고		

2.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의 주인공들에게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했다면, 그들의 삶은 보다 나았을까요? 만일 그들의 추락하는 삶을 구제할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아래 표의 빈칸을 채우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 봅시다.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실업에 대한 각종 대책. 개인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뒤 다시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노숙자 같은 사회적 무기력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경제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로는 사회보장과 같은 뜻으로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실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혜민북스, 2013)

단편 제목	필요한 사회적 제도 또는 정책	그렇게 생각한 이유
가방에		
최후 진술		
구토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		
표류		
붉은 브래지어		
을지로 순환선을 타고		

선생님께 학생들이 반드시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제도나 정책의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현재의 사회적 제도 혹은 정책을 조사할 수 있는 과제나 시간을 주시면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10차시

독서 후-〈깊이 생각하기〉 제안하는 글 쓰기

『추락하는 것은 복근이 없다』의 단편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을 골라 보세요. 그리고 그 작품 속에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제도를 구체적으로(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지역 사회에 제안하는 기고문을 작성해 봅시다.